

셀트리온, ‘아일리아’ 특허 분쟁 마무리… 美 진출 본격화

FDA 품목허가 최종 획득
리제네론과 합의로 분쟁종결
2026년 美 출시 가능 확보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 본격
美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

셀트리온이 후속 신제품 전략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K바이오시밀러 입지를 강화한다.

2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아이덴젤트 최종 품목허가권을 획득한 데 이어 지난 20일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와 특허 소송을 해결했다.

미국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인 아일리아를 보유하고 있다. 아일리아는 안과 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연간 매출 95억 달러를 거뒀다. 같은 기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만 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는 2024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셀트리온이 미국 제약 시장 진출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년 6월 미국, 2025년 5월 유럽에서 각각 아일리아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발맞춰 독점권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에 ‘제형 및 제조 공정’ 소송을 제기해 왔다.

해당 소송에는 글로벌 빅파마 암젠을 비롯해 바이오콘 바이오로직스, 마일란, 산도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암젠은 유일하게 승소해 2026년 미국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파블루 발매가 가능하다.

바이오콘 바이오로직스와 마일란도 지난 4월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와 합의를 도출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예사필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산도즈도 합의에 따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엔제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글로벌 경쟁 대열에 이름을 올리며 시장 확대에 나선다.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는 주사(바이알) 제형과 사전충전형 주사(PFS) 제형

두 종류다. 오리지널 의약품 아일리아가 미국에서 획득한 적응증 전체에서 품목허가를 확보했다. 신생혈관(습식) 연령 관련 황반변성, 망막정맥폐쇄에 따른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아이덴젤트의 동등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입증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셀트리온은 올해에만 미국 제품 포트폴리오에 아이덴젤트를 비롯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엠포즈마’, 골 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옵리클로’ 등 5개 제품을 추가하며 시장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점ую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치료제 영역과 영향력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추후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동아제약

어린이 종합 영양제

‘챔큐비타시럽’ 선택

아연·비타민B군 4종 등 함유

동아제약은 어린이 종합 영양제 ‘챔큐비타시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챔큐비타시럽은 일반의약품으로 글루콘산아연, 비타민B군 4종, 베타인염산염 등이 처방됐다. 병중병후에 오는 체력저하 및 육체피로를 개선한다. 면역력 저하로 발생하는 구내염, 구각염, 설염, 등의 증상 완화에도 효과를 갖췄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글루콘산아연은 체내 흡수율이 높은 아연 성분으로 감기 증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능을 입증했다. 베타인염산염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질병 후 식욕 회복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애플망고 향이 더해졌다. 또 막대 형태로 개별 포장돼 휴대가 간편하며 복용이 편리하다.

/이청하 기자

도전과 혁신의 80년… ‘AI 신약개발로 100년 도약’

제약바이오협회, 창립 기념식
비전2030 선포·미래관 준공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첫걸음을 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았다. 협회는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0년사’를 편찬하며 도전과 혁신의 8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향한 대도약을 다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과 협회의 궤적을 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0년사’를 편찬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의 역사는 물론 협회의 발자취까지 총망라한다는 취지 하에 산업사와 협회사를 구분, 과거부터 현재까지 산업계와 협회의 행보를 연대기순으로 기술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노연홍 협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로 기술했다.

산업사가 산업계의 도전과 분투, 혁신행보에 초점을 뒀다면, 협회사는 산업환경 변화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회의 대응과 활동 중심으로 서술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과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의 특별 대담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현주소 진단과 함께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 및 방안 등 제약바이오강국을 향한 고민과 미래전략을 담았다.

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산업의 초석을 다진 선배 제약인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에 이어, 80년 역사와 미래비전을 담은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지난 80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선포식’에서는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이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선포를 진행했

다. 협회는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K-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산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별관 ‘미래관’의 준공식이 진행됐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미래관은 1층 필로티 구조의 지상 4층, 389.57㎡(117.84평) 규모로 스마트사무실, AI신약연구원과 AI신약개발자육성실(SDL) 등이 자리를 잡았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기념사에서 “1945년 10월 광복의 혼란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첫걸음을 내디뎠던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80년의 역사를 맞이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어린이 종합 영양제 ‘챔큐비타시럽’ /동아제약

애경

비타 로즈 클렌징 3종

엘로로즈 성분·보습 강화

애경산업은 클렌징 브랜드 포인트엔에서 ‘비타 로즈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비타 로즈 라인은 세안 단계별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 클렌징 패드, 세럼팩 클렌저, 릿스 클렌징 폼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멀티 클렌징 패드는 양면 사용이 가능하다. 가로, 세로 격자 패턴의 엠보 면과 부드러운 면으로 설계해 메이크업을 지우거나 피부 결을 정리하는 등 다용도 기능을 갖췄다.

세럼팩 클렌저는 유효 성분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점 형태의 제형을 처방했다. 세안 후 수분이 없는 얼굴에 제품을 도포한 뒤 1~2분 경과 후 미온수로 닦아내면 된다.

림스 클렌징 폼은 밀도 높은 거품으로 피부 각질, 노폐물 등을 씻어낼 수 있다. 또 3종 히알루론산 성분이 피부 보습을 유지해 준다.

해당 제품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한 엘로로즈를 활용한 ‘비타 로즈 복합물’을 함유한다.

/이청하 기자

CGV, KBO 포스트시즌 평균 객석률 80% ↑

‘스크린X 라이브’ 응원 명소 급부상

CGV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진 ‘2025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SCREENX LIVE’가 평균 객석률 80%를 돌파하며, 대부분의 상영관이 매진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스트시즌 생중계는 SCREENX LIVE와 일반 2D 중계 등 두 가지 포맷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SCREENX LIVE가 관객들에게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다. SCREENX LIVE는 중앙 스크린과 좌·우 벽면까지 확장된 3면 영상과 5.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통해 마치 경기장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선사

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 직관을 가지 못한 많은 야구 팬들이 극장을 찾으며 새로운 응원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2025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역시 SCREENX LIVE로 만나볼 수 있으며 예매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CGV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CJ CGV 전정현 콘텐츠운영팀장은 “CGV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SCREENX LIVE의 차별화된 몰입감이 야구 팬들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포스트시즌 전 경기에서 높은 객석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한국시리즈에서도 팬들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응원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족초청행사 개최

임직원 가족 2600명 참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5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2025 가족초청행사’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가족초청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임직원 가족들이 회사의 비전과 조직문화를 체험하며 이해하는 교류의 장으로, 올해는 임직원 및 가족 총 2600여 명이 참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실험실 및 사무공간을 방문하는 견학을 비롯해 퀴즈, 미니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사내 정원을 배경으로 한 버스킹 공연과 가족과의 추억을 사진

으로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소속감과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회사의 성장은 임직원의 노력과 가족 분들의 성원이 함께한 결과”라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연수 전문은 “가족과 아이들에게 제 일터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 매우 뿌듯했고 특히 회사가 가족내 소통과 공감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이청하 기자